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내일 18학기 목회자 세미나, 8학기 성경대학 개강-

우리 교회는 내일(18일)부터 1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그리고 8학기 성경대학을 각각 개강한다. 그리고 20일(수)부터는 다락방장 공부가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째 시작되며 21일(목)에는 살롬경로대학이 개강을 한다. 23일(토)부터는 인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고, 70인 전도대 활동이 계속됨으로 명실공히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상을 정립하게 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해 봉사할팀이나 성경대학에서 공부할 이들, 그리고 살롬경로대학을 섬길 이들이나 피택자 교육에 동참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추석의 긴 연휴도 끝이 났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조석으로 불어오는

절실의 계절에 힘써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자.

◆ 살롬 경로대학 봉사자를 위한 교육 및 기도회

오는 21일 부터 서울교회 부설 살롬경로대학이 개설되어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복음전파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기쁨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살롬 경로대학이 이번 개강에 앞서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된다. 이중윤 위임목사의 특강과 송과 노인복지관 유경 복지과장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의 실제"라는 제목의 강의 이어서 기도회 시간을 19일 오후4시에 본 교회당에서 가지게 된다.

누가 와서 일할까?

제 18학기 목회자세미나에서 수고하실 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9월 18일(월) 부터 10주간 계속될 1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봉사 장소로 직접 오시면 된다.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 517 - 7651).

일 일	요일, 시간, 행사장	필요한 인원
식사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집, 제본	금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금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10시, 별관	하나, 에스더, 회원
점프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영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3시, 5시-6시	남자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주) 12시-오후 4시, YMCA	열두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하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7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연구수업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는 29일(금) 오후 7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성경공부와 부서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수업을 갖을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시도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분반공부 수업의 시범학습을 통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훈련을 공개로 수업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멀티미디어 학습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여 교회교육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번 연구수업은 중등부가 주관한다.

◆ 제 18학기 목회자 세미나 시간표

제 1교시	날짜	제 2교시
사도행전 연구 이 중 윤	9. 18	1. 정보화 시대의 교육목회/김만형(사랑의 교회)
	9. 25	2. 정보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교회의 대응/정일웅(홍신대)
	10. 2	3. 청년목회의 이론과 실제/김동호(동안교회)
	10. 9	4. 교회교육의 활성화와 교회성장/이승하(해방교회)
	10. 16	5.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명성훈(교회성장 연구소)
	10. 23	6. 언론매체와 교회성장/김장환(극동방송)
	10. 30	7. 교육목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은준관(연세대)
	11. 6	8.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박 건(안양 평안교회)
	11. 13	9. 주일학교 성장 사례/서영호(부산 서부교회)
	11. 20	10. 21C와 새신자 목회/이윤남(장석교회)

☉ 세미나 진행순서

- 1.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 용석범목사(중등부)
- 2. 분반공부 공개수업 - 노대희선생(중등부)
- 3. 멀티미디어 자료제시 - 이민호선생(중등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성경 : 이시야 40장 12 ~ 17절



이종운 목사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계시해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비록 그들은 약하고 그 압제자들이 매우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그리고 결길로 나가 다른 신들을 쫓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9절), 그리하면 '그는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이시리라' (11절). 비록 이와 같이 천한 목자의 비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그의 영광스러운 초월성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2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거짓말 하실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한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와 다룰 수 없습니다. 손바닥, 뿔, 되, 저울 등의 계량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하늘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

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방법은 경탄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으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권능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재시고 헤아리시고 달아서 처리하십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은 상인이 상품을 저울에 달아보고 다시 내려놓듯이 산들과 작은 산들을 쉽게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치 저울에 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의 손으로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원숭이 심장으로 사람의 심장을 대체하고 유전인자를 개조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합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할 때 세상은 파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뿔으로 재듯이 하늘을 정확히 펴셨고 땅과 바다도 측량된 것처럼 공정한 비율로 배열하셨으며 산은 지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무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일관성 있게 상호보충하면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3절).

누구든 여호와의 영을 지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인 존재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와 맞설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영)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욘 26:13) 그에게 어떻게 세상을 만들라거나 무엇을 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지시해 줄 어떤 모사가 필요하거나 의는 상대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목적과 적합한 방법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세무궁토록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앓고 일어섬과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생각하는 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3. 세상의 열병들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병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7절).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 인구가 많고 부한 나라들, 대륙과 섬들을 모두 모아놓아도 하나님에게는 통속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입니다. 앗수르와 바벨론이 제이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無)에서 그것들을 만드셨듯 또 다시 무(無)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굉장하게 떠오르던 민족이 자취를 감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하다고 하던 문명도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빈 것'은 혼돈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 1:2). 하나님은 원하시면 세상을 혼돈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할 것도 굉장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 3:16).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바논은 펠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6절).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무리 많이 저장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의 연료가 될 나무로 부족하며 거기에 짐승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만 번제도 부족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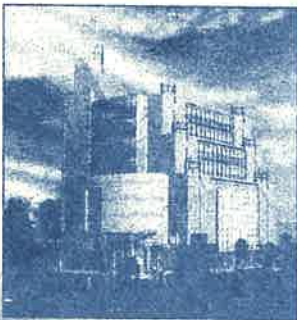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지라도 그의 크신 권능과 주권과 사랑에는 영원히 못미칠 뿐입니다. 왜냐 하면 그의 모든 축복과 영광이 모든 번제와 제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2000 열린 바자 기증품 접수내역

(본지 451호에 이어)

교 구	기 증 품 명
1교구	이종윤(신사복 11벌), 임옥균(이불등 다수), 한경섭·나금주(멸치등 건어물), 홍일성(아이스크림), 다락방장 알동(식당 재료비)
2교구	황정옥·주경자(케르마늄 목욕수, 고추장, 옥수수), 주정희(옥수수), 오충례(새우젓, 참기름), 안정옥(T셔츠 외)
3교구	고정숙, 허인숙, 박경희(현옷가지 다수), 허상환(금불이)
4교구	전기섭(휴지, 키친타올, 종이행주), 임훈규(마늘 500집), 김세재(등산화, 휴리닝, 아동T), 승영강(그릇), 이보우(생활 잡화, 그릇종류), 김규태(쌀 200포), 강혜신(옷종류), 신순우·김복순(표고버섯)
5교구	한길동·박영옥(가방, 양복 외), 탁경준(동양화 액자), 최인정(그림, 종이접기), 백수남(성구표구)
6교구	김사라(옷종류), 김시환·김정란(시계)
7교구	이상호(돋보기 안경, 시계), 함은희(신발종류), 박두호(복사용지, 싸롱이, 감주)
8교구	김정은, 한춘홍, 여현지, 김영식, 이봉선, 남미희(옷종류 다수), 여현진(마늘깎아개)
9교구	이동만(양복 10벌), 김중근(스타킹 3box), 장명순(들깨가루 3box), 이관규(사골 165box)
10교구	이복규·한명순(멸치), 백정순(고추장, 된장), 한중호(벨트 100개)
11교구	신정순(행주 1,000개), 예완식·송금자(휴리닝 150벌), 이양철·김미향(어린이성경, 비디오)
12교구	전연자(까나리백켓), 오광환·이안순(잡곡), 임상현·서희숙(상품권, 옷가지 다수)



새성전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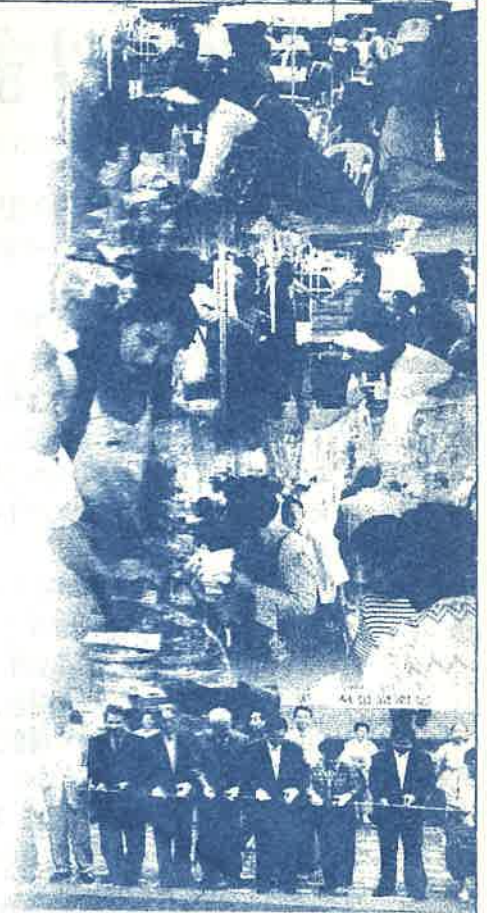
열린 바자를 하면서...

최정희(대학부)

먼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이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에 대해 제가 느끼게 된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반년정도 전부터 나오게 되어 이번 열린 바자가 첫 바자였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도 했습니다. 전 바자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했는데, 404호실에 마련된 대학부 열린 바자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애쓰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놀라웠고, 저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쉽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바자에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와 본 것이 이렇게 마치 막날까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매일이 또 다른 느낌이었고, 감동이었



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새 성전의 건축을 위해 주옥같은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는 바자회 안에서 대학부의 작은 정성이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단순한 판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다루어온 많은 귀중품을 주님의 뜻대로 그 물건에 어울리는 새 주인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자회에 동참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정운돈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정말 보람차고 멋진 하루였습니다. 저희만의 잔치가 아닌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는 열린 바자가 되길 바랐는데, 많이 알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보람된 하루를 잊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바자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음이 또 저희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저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자회 동안 함께한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늘 마음으로 함께한 분들, 저희의 든든함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과 청년부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 드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입당에 즈음하여!

김진호 집사(아브라함 선교회 부회장)

2000년 12월 25일은 서울교회가 새성전으로 입당하는 날이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에 위치한 대지 821평에 지하 3층 지상8층의 연건평 4,500평 철골조로 우아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몸되신 기관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의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교회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야 할것이다. 근자에 많은 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도 잘 된다는 기복신앙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하다. 시대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너 나 없이 정신차리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개인주의가 극대화 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는데에 일심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성도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교회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흔적이 새 예배당의 헌신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예배당 '건축소식'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입당을 목표로 우리교회 새 예배당 건축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부 공사로는 벽돌 쌓기가 시작되었고 내부공사는 방수, 전기, 설비, 내장 공사가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온 교회 성도들은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비전과 열심을 다하도록 기도 해 줄 것을 건축 위원회(위원장 오정수장로)는 당부한다.

현재 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 현장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잡일을 도울 손길도 요청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한주에 한두 시간씩 봉사자 명단과 봉사할수 있는 시간을 사무국, 또는 건축위원회(558-1106)로 예약해 주기를 기다린다.

■ 동정 ■

- 이종운목사는 19일 총회선교부 실행위원회에, 21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회에 각각 참여한다.
- 허상한 집사(3교구)는 경기도 김포에 양곡 중앙병원을 인수 개업 감사예배를 21일 오후 3시에 드린다.
- 건축을 위한 중등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아끼던 물품으로 바자회를 개최한다. 17일(주일) 4층 404호실 오전 9시 30분
- ❖ **비로잡습니다-** 순례자 425호에 새 전자 오르간 기사중 4단 78스톱은 4단 80스톱으로 바로 잡습니다.



상조위원회 조직이 완료되다

즐픔을 당한 서울교회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며 경황중에 있는 가족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간접적인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출범한 서울교회 상조위원회 조직이 완료 되었다.

지도목사에 고정선 목사 위원장에 민순구 장로 총무에 조정식 집사 김정희 권사 서기 김영주 집사 회계에 안분선 집사가 임명되었고 새롭게 출범하는 상조위원회의 이름다운 활동을 기대해본다.

각부서의 조직으로는 위로 및 입관 발인 하관 예배의 준비를 주관하는 예배부는 부장에 박두영 집사, 차장에 전용순 권사, 남선교회 연합회 간사, 제2 권사회 회장이 선임되었고 발인시 찬양을 담당할 찬양부는 지휘에 이보우 집사 부장에 오광환 집사, 차장에 유신, 백정순 집사가 임명되었다.

아울러 식당 봉사 및 기타 성경 받침상 등 상가를 위하여 여러 봉사의 일을 감당할 봉사부에는 부장에 이영희 권사, 차장에 이상태·김상옥 집사가 임명되었으며 운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스테반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급주식시공가정

: 이보우 집사, 서욱덕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사랑부- 18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착정한 건축현금 잘 바치고,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